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

- 韓·폴란드 정상회담('23.7월) 이후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최초로 폴란드 방문
-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의 첫 회담을 통해, 방산·원전 등 대규모 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국내 은행의 현지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방산·배터리 등 현지 진출 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은행 및 핀테크 업계 간 행사에 참석하여 민간금융권의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
- 이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오스트리아 소재)와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韓·폴란드 정상회담('23.7월) 등으로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24.(일)~3.27.(수) 일정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최초로 폴란드를 방문한다. * UNIDO 방문을 포함하면 3.24.(일)~3.28.(목)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 및 투자해온 국가로서 2010년대 이후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3년 기준 진출기업수는 370개사, 누적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한·폴란드 정상회담('23.7월)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등으로 금융지원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 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폴란드 금융당국 및 민간금융권에서도 K-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은행권 폴란드 진출 현황 및 향후 계획 >

은행명	진출 현황	향후 계획
기업은행	사무소 ('23.5월 개소)	현지법인으로 전환
우리은행	사무소 ('17.2월 개소)	지점으로 전환
신한은행	사무소 ('14.6월 개소)	-
하나은행	-	지점 설립 추진
수출입은행	-	사무소 설립 추진
국민은행	-	폴란드 페카오 은행 內 코리아 데스크 설립

김주현 위원장은 3.25.(월)에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양국 금융당국 간의 첫 고위급회담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정부 및 금융권이 확고한 금융지원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이들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현지 진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폴란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금융회사의 원활한 현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양측이 검토중인 감독협력 MOU*를 금년 상반기중 신속히 체결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 폴란드 금융감독청은 우리 금융사들의 현지 진출·영업에 대비하여, 통상의 협력 MOU보다 인허가 심사, 현장감독,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감독활동에 대한 협력사항이 추가된 MOU 체결을 제안하였고, 현재 양측 실무 검토중

또한, 김주현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폴란드 진출 국내 기업*들을 직접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 LG에너지솔루션, SKIET, 진영HNS / 광진기계, 우보테크, 태화기업, NVH코리아 등

이외에 김주현 위원장은 양국 금융권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민간금융권간 협력관계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①은행연합회는 폴란드 은행협회와 상호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디지털뱅킹 현황 등을 발표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②핀테크지원센터는 폴란드 핀테크센터(Fintech Poland)와 양국 핀테크시장 현황 및 진출가이드, 유망 핀테크기업 8개사(한국 3*, 폴란드 5)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웨이브릿지(자산관리/가상자산), 모인(해외송금/지급결제), 위허브(모바일간편결제)

이번 폴란드 방문은 정상회담 이후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교역·투자 등 실물경제에 비해 교류가 적었던 금융 분야에서도 새로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방산·원전 등 양국간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현지 진출 기업의 활발한 영업·수출 및 우리 금융사의 현지 진출 등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방문 이후에는 오스트리아로 이동하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우리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의 개도국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UNIDO는 개도국과의 협력을 전문적·총괄적으로 담당해온 다자 국제기구로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개도국과 양자관계에서 추진해왔던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의 진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MOU 체결 이후 청년창업재단(D-Camp) 및 핀테크 산업협회 등과 함께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UNIDO와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개도국의 산업개발을 통한 빈곤감축, 개도국-선진국간 기술협력 등을 위한 UN의 전문 국제기구(회원국 : 한국 포함 170개국)

< 출장 주요일정 >

3.25.(월)	3.26.(화)	3.27.(수)
한-폴란드 은행연합회간 MOU체결식 및 공동세미나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금융위-UNIDO간 MOU 체결식
폴란드 금융감독청장 회담	한-폴란드 핀테크 세미나 (폴란드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 인천)

※ 3.24.(일) 폴란드(바르샤바) 출국, 3.28(목) 인천 귀국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윤현철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오형록 (02-2100-2881)

